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맘대를 알려준 파수꾼 말라기 -복음으로 여는 말라기- 말라기 3:8-10, 마태복음 23:23

정운돈 목사님

* **말3:8-10**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 하나 보라

* **마23:2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아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승리하며 영원한 천국도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첫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 불순종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그 이후로 모든 인류가 이 땅에 떨어져 6 가지, 12 가지 그 속에 있는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까지 누릴 수 있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237 나라를 살리는 주역으로까지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으며 힘을 얻으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복음과 후대와 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생명 건 헌신을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속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 우리 교단과 대한민국에 주신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여름휴련이 다 끝나고 제주도의 여름성경학교를 돕는 캠프를 했다.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그레테와 같은 섬이다. 전도가 정말 안 된다. 문화가 다른 나라와 같다. 제주도엔 가면 50 가구, 100 가구가 있어도 교회가 있는 곳이 없다. 우상이 강하고 복음 전하기가 힘든 현장이다. 목회자들이 그 곳에 가서 성장시키고, 작은 교회지만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다. 기적과도 같다. 디도와 같이 파송된 것이다.

본문에 들어가서, 잠시 십일조와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십일조와 헌금을 해왔는데 구약시대에서는 십일조를 강제적으로 하게 했다. 종교국가이기 때문이다. 복음의 시대인 신약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된다. 세기적, 직분을 가진 분들도 오래 다니는 분들도 있다. 다양하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한국과 제3세계는 전혀 다르다. 우리는 너무나도 가난한데도 성도들이 모이면 생명을 걸고 헌금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모이면 교회가 세워졌다. 제3세계 외국에 가면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현장을 가면 부흥할수록 선교사님들이 힘들다. 10 명이면 10 명을 도와줘야 한다. 없어서 부족하지 마음속에서는 항상 선교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해 주신 것이다. 영적으로 봤을 때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 언약을 절대 놓치면 안된다. 하나님 앞에 절대 헌신했을 때 그 가정과 가문을 영육

간에 절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예수 믿어도 복 없다 하는데 대충 믿어서 그렇다. 그 중 핵심이 십일조이다. 구약시대 십일조는 여호와와의 것이라고 했다.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레위기 27 장 30 절에 보면 ‘그 십분의 일은 여호와와의 것이니 여호와와의 성물이라’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세금을 낼 때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곳에 드리는 것이다. 후대들도 이것을 배워야 한다. 과거에는 현찰을 헌금했다. 요즘 램넌트들은 현찰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램넌트들이 어렸을 때 헌금하는 훈련이 안 되어있으면 커서도 헌금하지 못한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앞서가고 알려주어야 한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기를 바란다. 3 천 제자가 왜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잘 하지는 것이 아니다. 참된 선교를 하려면 어느 정도 경제력이 필요하다. 어떤 분은 돈으로 선교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가치 있게 쓸 곳이 많고 도와줘야 할 곳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고 축복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이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왜 축복을 안 주시겠는가. 신명기 14 장 22 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말씀하신다.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리라고 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레위기 27 장 32 절에 보면 ‘모든 소나 양의 십일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 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와의 성물이 되리라’ 말한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십일조하기 어렵다. 빛이 저있기 때문이다. 사업하면 다 빛진다. ‘빛이 많은데 무슨 십일조를, 이자 갚아야지.’ 오히려 가난한 삶보다 십일조 못 할 수 있다. 사업을 한다면 ‘나의 수준에 얼마 정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것을 알고 정해서 드리면 된다. 그렇다면 십일조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1) 십일조는 모든 물질과 의식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다. 하나님이 모두 은혜로 주신 것이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덜된 인간이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주고 싶어 하신다.

(2) 또한 십일조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다. 요새 환경이 좋지 않아서 물부족이 되고 농산물도 부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주시지 않으면 굶어죽게 될 것이다. 안디옥교회의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에는 있을 것이다. 전 세계가 흉년인데 안디옥교회에서는 응답받아 오히려 본교회를 도와주는 응답이다.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3) 십일조는 우리들의 제 1 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나머지는 다 주신다. 하나님중심, 예배중심, 복음중심, 말씀중심하면 다 주신다. 십일조는 우리들이 물질의 종과 노예가 아니라는 증거이다. 많은 사람들은 만나면 돈의 노예이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십일조이다. 돈 따라가지 않는 증거이다.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마음껏 복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게 된다.

(4) 십일조를 드리는 실질적인 이유는 말라기 본문의 내용인데,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기 때문에 십일조를 받아서 생활했기 때문이다. 목회자, 교역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지금보다 교역자들이 더 필요하다. 여러분이 헌신하면 교역자들을 더 많이 뽑을 수 있다. 여러분이 응답받아서 축복받지 않으면 레위인, 목회자들을 세울 수 없고 그 목회자들이 없으면 교회가 유지되지 않는다. 성전관리, 찬양,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십일조 헌신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일조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성전을 떠나고, 성전에 예배도 그치고 결국에는 이방인들이 성전을 차지하게 되었다. 결국 백성들이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가 되었다.

(5) 예수님도 십일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3 장 23 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아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하신다. 유대인들도 십일조는 잘 드렸다. 그런데 믿음, 사랑이 없었다. 굳어있는 신앙이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본문에 들어가서,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사춘기 자녀처럼 반항하고 반박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다.

1. 첫 번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문제들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아굽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아굽을 사랑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2)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멸시하였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나 만군의 여호와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와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나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러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3)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비웃고, 헌금도 바르게 하지 않았다. 말라기 1장 13절을 보겠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흠친 물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이러한 영적상태를 가져서는 안 되겠다. 소중한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

(4)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들은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은 저주하시겠다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 말라기 2장 2절을 보겠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꾸지람하는 이유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꾸지람하기도 하고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훈계를 하기도 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이와 같다.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도, 꾸지람도 하는 것이다.

(5)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혼하고 아내를 폭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말라기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를 만드셨다는 것은 아담에게 하와를 짝 지어주신 것과 같이 일부일처제를 만드셨다는 것과 같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 한 남자 아담에게 한 아내 하와를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2장 16절에 보면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6) 백성들이 성전에 드려야 할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이방의 악한 사람들이 성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느헤미야 1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다. “에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아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항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이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받기로 도망하였기로” 지금도 이러한 상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2. 두 번째에서는 말라기에 숨겨져 있는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발견하고자 한다.

(1)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

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이 참 행복자, 참 성공자이다.

(2) 이스라엘 민족이 부족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237 나라 5천 종족 중에서 즉,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말라기 1장 11절을 함께 보겠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우리가 안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의 현장 즉, 나의 땅대와 나의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3)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말라기 3장 10절을 다시 보겠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신 부분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온전한 십일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만큼 온전한 십일조는 교회를 지키는 중요한 헌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과 미션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4)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면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말라기 4장 2절을 보겠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진정된 개인과 가정의 심각한 병은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것이다.

(5)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이다.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아(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진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즉, 그리스도의 참복음을 영접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결론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를 찾아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다.

1. “Covenant(커버넌트), 24 언약의 땅대”이다. 최고의 언약의 땅대는 우리가 부족하고, 심지어 죄를 저지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다.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2. “Vision, 25 비전 땅대”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3. “Dream(드림), 영원한 땅대”이다. 만약 우리들이 24 시간동안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목상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 땅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들이 기도 안에서 체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니스 집중에 올인한다면 3.9.3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배와 기도로 집중하는 것이다.
5. “Practice, 프랙티스 땅대”이다. 하나님의 해브리 파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해브리 달란트를 찾고, 해브리 미션을 위해 조금만 도전해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게 될 것이다. 끝으로 말라기 선지자처럼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하여 70현장에 해브리, 드론리, 이터널리(Heavenly+Thronely+Eternally)의 파수대대를 세우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라기서를 통해서 소중한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가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신양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셔서 이 언약의 여정으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 후대들이 부족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